

Elaine Phillips 박사, 에스더, 강의 3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3장에서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을 만납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내러티브는 놀랍도록 절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7절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2장 끝 부분에서 쿠데타가 좌절된 후 하만이 권력을 잡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1장에서 왕을 에워싸던 수많은 지명된 조언자들은 사라졌고, 하만은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권한을 얻었는데, 이는 아마도 위협받는 왕이 부과한 보안 조치의 결과일 것입니다. 1절에 따르면, 왕은 하만을 크게 만들고, 그를 높여 다른 사람들 위에 앉혀 계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두 개의 동사 대신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상승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예상했던 모르드개의 승진 대신 명예를 얻은 사람도 하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가 다 무릎을 꿇고 절하고 존경하니 이는 왕이 하만에 대하여 이같이 명하였으되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이더라.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이중선의 또 다른 패턴이며, 이 서사에서는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용어는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얼굴에 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사는 계속해서 몸을 굽히고 굽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 훈련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승인을 얻었고 정치적 관점에서 나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4절의 의미는 그것이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겸손과 상사에 대한 인정의 행동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들에게 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상 다른 상급자들에게 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문맥에 나오는 표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는 kor'im u'mishtahavim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묘사하는 구절에는 동일한 쌍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두 동사를 함께 사용하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동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문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성은 충분히 넓었기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개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자기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절로 나아가면, 그것은 분명히 강제된 통일성이 있었고 모르드개의 행동은 왕의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자 하만의 명예에 대한 대중의 모욕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종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개에게 질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종들이 날마다 모르드개를 따르지만 문자 그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발견하는데, 이는 종종 순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들에게 kor'im u'mishtahavim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절하지 않는 것은 그의 유대인 정체성과 모든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만에게 보고하면서 종들은 말이나 행동, 즉 디브레이라는 단어가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단어가 단어를 암시한다면 유대인이라는 그의 주장은 그가 민족적, 종교적 면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생각이 태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이라면 하인들은 인지된 반항이 용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하만에게 알리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악의적인 의도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하만은 눈치 채지 못했고, 계속해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전처럼 그를 설득하여 절하도록 설득하기를 그쳤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하만에게 넘겼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노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개의 백성이 누구인지 알게 된 그는 모르드개만 죽이려는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만은 크세르크세스 왕국 전체에서 모르드개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만의 분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명예에 대한 이러한 공개적인 모욕은 한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굴욕이었습니다. 민족 간의 불화가 모르드개뿐만 아니라 그의 반감에도 동일하게 기여했다면, 그것은 그가 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굴욕을 느낀 하만은 모르드개와 그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궁극적인 불명예를 가짐으로써 대규모 보복을 계획했습니다. 모르드개 백성이라는 표현은 두 번이나 반복된다. 먼저, 하만은 모르드개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사악한 의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원로원과 아각의 원로원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민족적 적대감, 또는 아마도 보다 널리 퍼진 반유대주의 등의 어떤 것이 하만을 자극하여 이것이 진정한 인종 청소를 위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7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유월절과 그 위대한 구원을 뚜렷하게 상기시켜 주는 첫째 달인 니산월을 인용하여 시작합니다.

2장의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모르드개의 암살 시도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폭로된 것은 왕 통치 12년째였습니다. 눈에 띄게 정관사 없이 가난한 사람이 로트, 즉 하고랄로 식별되었다는 사실은 초기 청중이 가난이라는 외국어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제비를 뽑는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은 다양한 활동에서 제비를 사용했음을 입증합니다.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하되 왕의 나라 각 도에 민족 중에 흩어져 따로 지내는 한 족속이 있으니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며,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의 최선의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 왕에게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는 왕비를 포함한 나머지 백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은 우리가 읽은 이 명령을 모호하게 유지했는데, 이는 그가 원하는 허가를 얻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교활했고 시작 부분에는 이중 모서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메카드(ah-me-chad)라는 어떤 민족은 이름이 없지만 오직 한 민족뿐이므로 중요하지 않고 아마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을 불길하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억누르는 것은 유대인으로 알려진 모르드개와 같은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만의 발표는 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흩어진 사람들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그들의 관습이 다르다는 절반의 진실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노골적인 거짓말로 바뀌었습니다. 하만은 어떤 법이 지키지 않았는지를 왕에게 조심스럽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압박을 받는다면 그가 인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명령은 그에게 절하라는 명령뿐일 것입니다. 하만의 마지막 책략은 문제를 실용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쉬게 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그들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려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은 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넣어 두리라 하였느니라 사업. 하만은 의무 조항을 앞세워 왕이 기뻐한다면 해결책으로 법령을 제안했습니다. 수동적인 것은 그들의 파괴를 위해 쓰여졌고, 왕이나 하만 중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책임을 제거하고, 다시 이름 없는 관료제에게 맡겼습니다.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제의한 금액은 페르시아 제국 연간 수입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는 헤로도토스로부터 다리우스 치하의 총 수입이 14,560달란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폭군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는 왕국의 두 번째 사람으로서 하만은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그가 이 보상의 적어도 일부를 유대인의 재산을 약탈하여 나오도록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금액이 마치 자신의 금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했지만 말입니다.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자 하만은 아마도 전리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하만은 그것을 사용하여 추가 약탈품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고대의 사기였습니다.

이것은 왕의 탐욕에 대한 분명한 호소였으며, 크세르크세스의 자원이 전쟁 노력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갈되었다면 참으로 유혹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제시한 내용에는 악마적인 면이 더 있을 수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 본문의 서술자가 원본 대화에서 가능한 중요한 말장난을 번역에서 보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Haman은 의도적으로 전멸을 의미하는 aleph와 노예를 의미하는 ayin으로 표기된 avad의 유사한 소리를 연주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 절에서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쉬지 못하게 하는 가치에 대한 그의 호소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노예로 팔렸더라면 그녀가 침묵을 지켰을 것이라는 에스더의 나중에 언급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적 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7장). 에스더가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실제로는 대대적인 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의도가 노예화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왕에게 말할 때 하만이 사용한 유일한 용어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법령이 세 가지 용어로 작성되었을 때 그가 의미하는 바에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한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라는 하만의 요구를 왕이 받아들인 경솔한 태도와 엄청난 뇌물은 충격적이다.

왕이 이것이 노예화를 위한 판매이고 그의 백성이 일종의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그의 왕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그의 반응은 다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장반지를 흔들며 그들을 해산시켰고, 돈을 먼저 언급한 다음 사람들에게 말했다. 크세르크세스가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한 인장 반지를 건네는 시점에서 하만의 전체 이름이 나타나고 그 뒤에 유대인의 대적이라는 별명이 나옵니다.

이 용어는 적보다 강하다, 아들아. 괴로움을 일으키는 자, 초레르(tsorer)이다. 모르드개는 금융 거래를 보고했고 에스더는 자신의 백성이 실제로 팔렸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왕은 어떤 형태로든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돈과 아바드의 의미에 관해 의도적인 모호함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왕이 하만에게 돈을 갖고 백성을 원하는 대로 처리하라고 말하자 하만의 법령은 소름 끼치고 틀림없는 살육과 파괴를 더했습니다. 왕은 결코 해명을 요구하지 않고 하만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치할 자유를 주었으며, 모든 백성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삼았으나 곧 잊어버렸습니다. 12절에서 이전 니산월 7절에 언급된 내용은 유월절에 대한 암시적인 암시였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본격적으로 발휘됩니다. 여기에는 첫째 달 13일, 즉 유월절 전날에 기록된 법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통적으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낭송하던 당시 그들은 대신에 또 다른 외국의 압제 아래서 멸망당할 무서운 전망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후 관료적 기구는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기관이 소환되었습니다. 하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인장 반지로 봉인되었으며 각 행동은 수동 동사로 표시되었습니다.

13절: 왕의 각 지방에 사자를 보내어 열두째 달 십삼일 하루에 유다 사람을 남녀노소와 여인과 유아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아달월에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려 함이니라 그 칙령의 사본은 각 지방에서 법으로 반포되어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동태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리감과 비관여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명령을 내리는 행위를 봅니다.

그들은 유다인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하루에 모든 유다인을 도륙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된 텍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 동사가 빠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뒤에 포괄적인 피해자 목록이 나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적법한 소유자와 잠재적 상속인이 하루 만에 처분된 후 모든 약탈에 대해 폐쇄가 무료로 부여되었습니다.

15절에서 우리는 9장에서 알 수 있듯이 밀사들이 제국의 먼 곳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9장에서 알 수 있듯이, 반대 법령이 있는 후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 집결했습니다. 동시에 성채에서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왕과 하만은 그들의 범죄가 엄청났기 때문에 냉담한 어조로 유명한 사적인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상당히 마지막에 있는 수사(Susa) 주민들은 이 법령에 대해 진심으로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어떤 형태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혼란의 상당 부분은 한편으로는 공포에서부터 억제되지 않은 환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사의 사람들은 유혈 사태를 명령하고 칙령이 공포된 소수인 성채의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모르드개의 반응을 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고 들리게도 분명했습니다. 찢어진 옷과 거친 염소털이나 낙타 털로 만든 벴옷은 노출과 자기 굴욕의 옷이었습니다.

먼지와 재는 죽음으로 인한 육체의 파괴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의식적 불순함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했습니다. 굵은 벴가 상징하는 본질적인 수치 때문에 왕의 문에서 권력의 장을 더럽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다.

모르드개가 극도로 쓰라린 부르짖음, 문자 그대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은 그의 백성에게 가해진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 상황에 이르게 한 상황에서 그

자신의 책임의 무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것은 그의 백성 전체의 위기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소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그의 공개적인 항의에서 더 많은 동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에스더의 관심을 끌고 그녀를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궁궐의 외딴 곳에서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3절, 왕의 칙령과 명령이 각 도에 이르매 유대인이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여 크게 애통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체 유대인 인구가 공개적으로 애도하면서 개인 차원의 모르드개의 슬픔이 반영되고 증폭되는 것을 봅니다. 금식은 그들의 애도의 두드러진 특징이었고, 그것은 본문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잔치에 대한 대위법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전개되면서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대결을 벌이는데, 에스더 왕비의 내시 중 한 사람인 하닥이 중재한 대결입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모르드개의 행동이 그녀의 입장에 비해 위험할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여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이는 그 단어의 주어가 큰 고통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이며, 그 어근은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반응은 당혹감을 암시합니다.

그에게 옷을 보내는 것은 그의 폭발이 그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의 전통적인 반응은 극단적으로 보였을 것이고, 의식용 베옷은 극도로 불쾌하고 보기 흉했을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법정 조례에 따라 5년 동안 직무를 수행했으며 의심할 바 없이 왕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매우 염려했습니다.

에스더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자신을 섬기도록 임명된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하닥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으며, 이 상황의 민감성이 드러남에 따라 그렇게 할 이유가 더욱

많아졌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maze ve'al maze는 그녀가 그에게 묻는 질문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와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특별한 교환이 시작됩니다. Hathach의 지속적인 존재는 내러티브의 속도를 늦추고 그가 중재하는 동안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모험에서는 에스더의 유익을 위해 칙령의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담론은 간접적입니다.

7절에서 모르드개는 먼저 하만에게 절하라는 칙령과 그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 것과 유대 민족을 대신하여 애도하게 된 가혹한 결과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출처가 제공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 심지어 하만이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제안한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심이 막연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확인하기 위해 모르드개는 하닥에게 보낸 칙령의 사본을 작성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그 보고를 받아들여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했는데, 이는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간청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때까지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숨기라고 명했던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하닥이 계속 중재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말이 직접적인 대화로 제시됩니다. 문자 그대로 에스더는 모르드개로 돌아갈 때 그에게, 즉 하닥에게 명령을 내렸고, 권위 있는 여왕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한 말을 인용하면, 왕의 모든 신하와 왕도의 백성은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는 남자나 여자에 대하여 왕의 규례는 오직 하나니 곧 한 가지인 줄을 아느니라 죽임을 당하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왕이 그에게 금홀을 내밀어 그의 생명을 살려준 것뿐인데 왕에게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처음으로

분명히 표현한 말은 거의 확실한 죽음에 직면하여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효한 사과였습니다.

그녀는 포괄적 제한에 대한 상식을 바탕으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본문에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더욱이,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 의미는 모르드개도 그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녕에 대한 에스더의 관심은 그녀가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는데, 모르드개는 몰랐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마도 왕이 행한 다른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유대인임을 인정하는 추가적인 도발은 그녀의 평가에 따르면 사건을 절망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르드개의 반응은 맹렬했고, 그녀의 왕위 지위의 특권이 그녀의 유대인 정체성에 맞서고 심지어 총애받는 여왕이 되어도 그녀를 구하지 못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 중에 너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네가 잠잠하면 다른 곳에서 구원과 구원이 일어날 것이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당신이 이런 때를 위해 왕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즉, 하만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모르드개와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운명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이 그러한 세부 사항을 알아낼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했는지, 그리고 이 배반 행위가 정확히 어느 방향에서 일어날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표현한 대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탈출하려는 의도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신원이 다른 유대인들의 신원과 함께 알려지기 때문에 그녀는 탈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구출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는 변절자들의 손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6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겨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그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의 첫 번째 읽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르드개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침묵하더라도 구원은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에스더 자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진술 자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13절 끝에 있는 잠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절의 맥락에서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왕궁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경고했고, 그는 여기서도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반복했다. 후자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그를 포함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이 없을 때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 점이 특히 지적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가 왕위에 오른 이유를 고려하려는 그의 도전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실제로 안도감이 다른 곳에서 올 것이라는 희망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도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야아모드(ya'amod)이지만 그것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며 왕궁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하만에 가깝다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휩쓸려 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절은 부정적인 반응을 가정하는 수사적 질문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지금 너희가 잠잠하면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이 도움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로 읽혀질 것입니다. 대답하라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도 멸망하리라. 이 번역은 어쩌면 문법적으로도 본문의 전통적인 독법에 존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만약 다른 곳이 의미하는 어떤 곳에서든 도움이 일어났다면 왜 에스더의 가족, 특히 모르드개도 이 대리인에 의해 구출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개의 도전이라는 참으로 무서운 성격의 결과로 에스더의 기분은 극적으로 변했고, 이야기는 매우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는 목숨을 바칠 뻔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민족과 하나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에 대한 복종과 이교 궁정의 요구에 대한 반응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관리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녀의 강인한 성격은 왕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드러내며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과 맞서겠다는 결의에서 드러났습니다.

단식이 자신의 전통에서 오래되고 존경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공동적이고 포괄적인 단식을 촉구했으며, 이로써 칙령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이 위기에 대한 공동 참여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급진적인 호소인 이 금식은 엄격함 측면에서 모든 규정된 금식을 능가합니다. 삼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사업의 일부였습니다. 에스더는 유대교에 대한 공적인 정체성을 처음부터 가졌을 때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규율 중 하나를 적용했으며, 더 나아가 유대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젊은 여성들도 자신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금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왕 앞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르드개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놀라운 기业的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내가 멸망할 때, 나는 멸망할 때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죽음이 어느 쪽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녀의 인식을 나타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그녀의 결정이 그녀를 드라마의 나머지 부분에서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배우이자 개시자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17절,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지시를 다 준행하나라. 첫 번째 부분은 문자 그대로 모르드개가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초기 랍비 해석자들은 그가 니산월 13일과 14일에 금식을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성채를 떠나 수산성으로 건너가서 유대인들을 모으고 금식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칠십인역에는 우리의 관심을 위해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길고 열정적인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한 후 에스더는 5장에서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왕의 예복을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왕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앉았고 에스더는 서 있었습니다. 문장 구조는 서스펜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궁에 초점을 맞춥니다. Beit HaMelek은 궁전과 왕궁을 모두 번역한 것입니다. Beit HaMalchut, 죄송합니다. Beit HaMalchut과 HaBeit은 한 구절에서 4번 사용되었습니다.

두 배우는 출입구의 임계점 반대편에 위치했습니다. 왕은 궁전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본 것은 왕비 에스더였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다시 그의 호감을 샀고, 그는 홀을 내밀어 그 호의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신중하고 신중한 언어가 암시하는 대로 정확하고 변경될 수 없는 프로토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손에 쥐고 있던 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다가가서 금홀의 머리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70인역은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녀들에게 섬세하게 기대고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며, 이어서 왕의 맹렬한 분노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는 아마도 마소라 본문이 히브리어 원문인 에는 양념이 부족합니다. 번역과 해석은 멜로드라마적인 추가를 계속합니다. 에스더는 쓰러져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절했습니다. 비록 왕은 진노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셨고 대신에 그는 보좌에서 그녀의 조수들에게로 떠나 그의 품에 안겨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는 그의 왕의 위엄에 대한 합당한 감사를 그에게 쌓았습니다.

히브리어 본문 3절로 돌아가서, 왕은 에스더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법정 규약을 어기게 만든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히브리어 mah-lak, 문자 그대로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이후에 사용했던 패턴화된 수사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단축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의 외모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질문의 일부는 실제로 그녀 자신의 고통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무뚝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는 이어서 다시 나타날 귀하의 요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표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왕국의 절반까지를 주겠다는 약속은 일종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홀이라는 형태로 생사의 권세를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요구에 지배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실 그녀가 말하기 전에 그것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더가 이미 준비한 비공개 잔치에 하만과 왕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은 그녀가 신중하게 전략을 세웠음을 나타냅니다.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가는 모험을 했다면, 단지 왕을 연회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문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왕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행동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잔치는 궁중 문화와 텍스트 주제에 모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요청의 어렵고 섬세한 성격을 다루기 위해 덜 엄격하고 공개적인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에스더의 초대의 히브리어 형식은 예정된 두 손님의 키와 일치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8절도 왕이 오시게 하라로 읽힐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만은 급히 끌려왔고 왕은 들어갔는데, 이 단수 동사는 아마도 하만과 함께 그를 구별시켰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표면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 사람이 한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청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허락될 것이다.

와인 소비를 위한 별도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회가 끝날 무렵에는 미슈테 야인(mishte yayin)이라는 와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 만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본 왕의 첫 번째 축약된 질문은 부분적으로 에스더가 분명히 괴로움 속에서 초대받지 않고 들어온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태도는 아마도 프로토콜에 따라 훨씬 더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중 청원과 요청이 표준 법정 수사라면 에스더는 그 패턴을 알았을 것이고 그녀가 이 일에 완벽하게 맞도록 미리 두 번째 연회인 7장에서 제공할 중요한 요청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이중 수사법은 서술적 틀과 여기 7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첫 번째 패턴 반응을 형성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표현은 그녀가 대답하고 말한 것인데, 매우 히브리적인 구조이지만 그것은 두 배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청원과 나의 요청이니라 여기서 불완전한 문장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단순히 이 요청의 연속으로 8절을 읽는 대부분의 현대 번역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녀의 요청은 8절에서 읽은 것처럼 단순히 다음 잔치에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민한 청중이라면 그녀가 압박감에 흔들리고 있을 때 안정을 취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왕이 총애하는 조연자의 배신을 폭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해야 하는 순간을 자발적으로 미룬 것일 수도 있다. 반면에, 일시 정지는 하만을 체계적으로 취소하려는 그녀의 계산된 계획의 다음 단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8절: 만일 왕께서 나를 좋게 여기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면 왕과 하만은 내일 잔치에 오소서 나는 그들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왕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수사법을

완벽하게 통제했으며, 왕 자신이 표현한 이중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는 유능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를 절묘하게 표현하여 왕이 마침내 그녀의 요청이 오면 그녀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명언, 내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를 오게 해주세요. 더욱이 그녀는 내가 호의를 얻었고 그것이 좋아 보인다면 자신의 변명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 다시 한 번 호의를 찾는다는 표현은 더 일반적인 관용구이며 아마도 그녀의 어느 정도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연회에 초대하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다면 하만이 그 발표가 발표되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될 사고방식에 더욱 빠져들게 될 것이며 어쩌면 그의 교묘한 정치적 회피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왕의 말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왕국의 절반까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흥미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와는 달리 여기서 에스더는 왕이 아닌 그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질투심이 극에 달했을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포함입니다.

따라서 랍비 주석가가 제안한 대로, 다음날 밤에 그를 깨어 있게 하십시오. 이 시점에서 화자는 하만과 모르드개 사이의 관계가 재개되면서 청중을 긴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5장 끝 부분의 다음 두 장면에서 하만의 변동성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9절도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기분 좋은 마음, 토브레프(tov lev)는 말 그대로 선한 마음을 의미하며, 모르드개가 일어나거나 떨기를 거부하는 것과 대조되는 하만의 특징입니다. 이전에 하만이 거역한 명령은, 죄송합니다. 이전에 모르드개가 거역한 명령은 하만 앞에 절하고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가 알현실에 성공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문 앞에 앉아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명령된 절차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서기를 거부했습니다. 추가 동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의 명령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려고 의도했지만 모르드개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만의 마음 상태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분출되면서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그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청중을 갈망하면서 그는 친구들과 그의 아내인 제레쉬(Zeresh)를 불러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아마도 이전에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한 낭독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구절의 순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엄청난 부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그의 많은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그는 특히 비슷한 키를 가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자신의 높은 지위에 대해 웅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전에 그의 자랑을 모두 들었다면, 그만이 에스터 왕후와 왕과 함께 개인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할 것처럼 연회에 데려왔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내일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만은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큰 결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왕 다음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경멸했던 한 사람, 바로 유대인 모르드개의 절을 갈망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는 너무 흥분해서 모르드개의 존재 자체가 그를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인용하자면, 모르드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의 업적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레쉬가 앞장서서 하만에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14절의 동사는 단수형이지만 친구들도 의논에 참여했습니다.

이야기 속의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했는데, 남자들이 자신의 집을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모르드개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만이 모르드개를 볼 때마다 그에게 잔소리를 했던 굴욕과 상처받은 자존심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개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높은 장대, 즉 여덟째 기둥, 문자 그대로 나무에 못박아 달라는 요청은 그를 완전히 타락시키려는 하만의 광란을 나타냅니다.

이 기둥은 수사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이 환경에서 공식적인 모든 작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행한 대규모 규모에 대해서는 90피트 동상의 다니엘 3장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 만연한 우연의 일치는 뭔가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입니다. 왕은 우연히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연대기는 우연히 모르드개의 선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만은 왕이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정한 좋은 순간에 우연히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우연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전은 섭리의 손길이였다. 불면증은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있기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 잠이 오지 아니하였더라. 불면증의 좌절감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주석가들은 왜 왕이 이런 식으로 고난을 받았는지 추측해 왔습니다. 그의 생각의 얽힌 그물에는 그가 에스더에게 왕국의 절반까지 약속했다는 불안감이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을 개인적인 잔치에 초대할 에스더의 동기와 그녀가 하만과 왕에게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암시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몇 년 전 그의 집 바로 밖에서 일어난 암살 시도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독서 자료는 기억의 책,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연대기의 용어인 Sefer Divrei Hayamim의 확장판입니다.

이는 행동이 페르시아 궁정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언어 과잉의 또 다른 예입니다. vayhi, vayhiyu에 수동 분사를 더한 동사 형태는 일정 기간의 과정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법원의 독자들은 밤새도록 웅얼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에 대한 암살 시도에 대한 기록이 이름과 칭호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두 개의 수동 동사는 비인격적인 법정을 반영하고 이러한 문제가 적절한 시기에 섭리적으로 밝혀졌음을 나타내는 미묘한 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수동태는 3절에서 계속됩니다. 문자 그대로 무엇을 하였습니다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참석자들은 2장에서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명예와 위대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에스더서 3장에서 하만이 승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잘못된 명예에는 해결해야 할 불의가 있었습니다. 6장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말씀드리려고 왕궁 바깥뜰에 들어섰더라.

그의 신하들이 대답하되 하만이 뜰에 섰으니 왕의 명령대로 그를 데려오라 하니라 왕도 하만도 잠을 자지 않았고 둘 다 모르드개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만은 바깥뜰에 들어갔을 때 매우 이른 시간이었고, 이는 그가 모르드개를 없애려고 너무 서두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또한 왕에게 묻지 말라고 말하러 왔는데, 참으로 뻔뻔스러운 태도였습니다. 하만은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왕 앞에 들어간 것은 밤새도록 낭독을 마친 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가 왕의 침실로 안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서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